

충청북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

2024. 10. 17.(목) 오후 4시

충청북도의회 7층 회의실



박진희 충청북도의원



민주노동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충청북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

2024.10.17.(목) 오후 4시 충청북도의회 7층 회의실

좌 장 박진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주 최 박진희 의원,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발제 김광중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부지부장

토론1 오세곤 충북도립극단 운영위원장, 순천향대 명예교수

토론2 신혜리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팀장

토론3 배상호 충청북도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장

토론4 허수영 율량중학교, 사천초등학교 학부모

토론5 김시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 예술강사

토론6 조현경 북이초등학교 교사



예뻐TV 라이브 생중계 🔍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민주노동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충북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

2024년 10월 17일(목) 오후 4시
충청북도의회 7층 회의실

<1부> 16:00 ~ 16:30

- 개회 및 내빈 소개 – 사회 이상덕 지회장(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청주지회)
- 인사말 – 이소영 지부장(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 축사 – 이정범 위원장(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 기념촬영
- 주제발표 – 김광중 부지부장(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예술강사)
‘충북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2부> 16:30 ~ 17:30

- 좌장인사 및 토론자 소개 – 좌장 박진희 의원(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 토론
 - 오세곤 운영위원장(충북도립극단, 순천향대 명예교수)
 - 신혜리 팀장(충북 학교예술강사 운영단체, 서원대 문화예술교육센터)
 - 배상호 과장(충청북도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
 - 허수영 학부모(사천초, 율량중)
 - 김시내 무용분야 예술강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조현경 교사(북이초 연구부장)
- 질의 응답 – 좌장
- 폐회

차례

인사말

| | |
|--------------------------|---|
| 박진희 의원(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 7 |
| 이소영 지부장(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 8 |

주제발표

| | |
|---------------------------------|----|
| 김광중 부지부장(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예술강사) | 10 |
|---------------------------------|----|

토론1

| | |
|------------------------------|----|
| 오세곤 운영위원장(충북도립극단, 순천향대 명예교수) | 24 |
|------------------------------|----|

토론2

| | |
|--------------------------------------|----|
| 신혜리 팀장(충북 학교예술강사 운영단체, 서원대 문화예술교육센터) | 27 |
|--------------------------------------|----|

토론3

| | |
|-------------------------|----|
| 배상호 과장(충청북도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 | 30 |
|-------------------------|----|

토론4

| | |
|-------------------|----|
| 허수영 학부모(사천초, 율량중) | 32 |
|-------------------|----|

토론5

| | |
|----------------------------|----|
| 김시내 무용분야 예술강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34 |
|----------------------------|----|

토론6

| | |
|------------------|----|
| 조현경 교사(북이초 연구부장) | 36 |
|------------------|----|

인사말

박진희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교육위원)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힘을 확인하였습니다.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K-POP, 봉준호의 기생충으로 시작된 K-무비,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으로 이어지는 K-드라마 등 한류의 열풍이 이제 문학까지 그 지평을 넓혀갈 것이라는 기대 또한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환희와 확신, 기대의 한편,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의 근간이며 한류의 밑거름이 되어 왔던 문화예술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거의 다 삭감해 2023년 605억 원이었던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예산을 2024년에는 287억 원, 2025년에는 8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2년 동안 예산이 86%나 삭감된 것입니다. 더욱이 2025년 인건비는 0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예산과 교육청 지방교육재정으로 50%씩 분담해 오던 것을 갑자기 지역 교육청 예산만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사실상의 폐지 수준이나 다름 없습니다.

학교예술강사 사업이 시작된 것은 25년 전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는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전국 5천여 명의 예술강사가 250만 명의 학생들을 학교 정규수업 시간과 창의적 체험시간에 예술강사를 만나 국악, 연극, 무용, 영화, 애니, 사진, 디자인, 공예를 접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는 지방교육재정 부담 규모에 따라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 무너지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토론회입니다. 2025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예산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창의성, 예술적 감성, 문화 역량을 성장시키는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안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도 예술교육에 열정을 쏟아 온 예술강사들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문화예술 공공성과 보편성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말

협오가 넘쳐나는 이 시대, 문화예술교육은 더욱 확대돼야 합니다.

이소영(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장)

‘충북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위해 뜻 모아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특히 이 자리 마련을 위해 물심양면 도와주신 박진희 충청북도의회와 충북도의회 사무처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학교에서는 틀에 박힌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은 학교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극하고 계발하며, 인성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력과 소통능력 계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2000년을 전후해 문화예술교육을 강화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00년 국악강사품을 시작으로 25년째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으로도 문화예술교육이 확산되었습니다. 다양한 주민공동체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은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확대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적인 문화강국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이런 성과를 이루는 씨앗의 역할을 예술강사지원사업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 예술강사의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25년 동안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현장의 5천여 예술가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재의 20, 30대 대부분은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았겠지만, 아마 예술강사를 모르는 이들이 태반일 겁니다. 아마 음악교과의 국악강사는 음악교사이겠거니, 국어교과의 대본수업을 하는 연극강사는 연기 좀 하는 국어교사이겠거니 했을 겁니다. 이 분들은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공기와 같이 묵묵히 활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뒤늦었지만, 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온 예술강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사회가 혐오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

을 대폭 삭감하며 문화예술교육 포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문화예술교육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교육청이 토론회에 모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예산을 증액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주제발표

충청북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 예산을 중심으로 -

김광중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지부장, 국악분야 예술강사)

1. 들어가며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한국의 대표적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질적·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 최근에는 연 290만 명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2024년 정부예산은 전년 대비 50% 삭감되었고, 2025년 정부예산은 72% 추가 삭감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상황이다. 정부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놓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충청북도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1)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개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1998년 7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학교 전통문화 소외현상 제기를 계기로 2000년 국악강사풀제 사업으로 시작되어, 2002년 연극, 2004년 영화, 2005년 무용과 만화애니메이션, 2010년 공예와 디자인 및 사진 분야가 신설되어 현재 8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 분야별 전문 인력의 초·중·고등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창의력을 향상시키고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며, 예술인들이 예술 창작활동과 교육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25년째 지속되고 있다. 사업 명칭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강사풀제’였고, 2006년부터 ‘예술강사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사업 추진근거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협력사업 계획’ 등에 따르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공동 협력 하에,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광역시·도교육청, 광역지방자치단체(국악분야)의 예산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문화관광부가 국악협회와 연극협회 등을 통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이었다. 2004년 문화관광부와 교육부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2005년 2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그해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06년 6월 시행령 통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특수법인 전환 등을 통해 예술강사지원사업은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추며 빠르게 성장했다. 2007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이 시작되었고,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로 2009년 광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이 매칭되면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예술강사지원사업은 교육부처와 문화예술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된 2005년 55억이던 학교예술강사사업예산은 그동안 17배 증가해 2023년 951억으로 확대되었다. 2023년 예산구분을 보면 국고 575억, 지방교육재정 318억, 지방비 58억이었다. 2016년에는 5,357명의 예술강사가 8,776개 초·중·고등학교에 출강하며 연간 290만명의 학생들에게 153만시수의 문화예술 강의를 하기도 했다.

<표 1>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변화(2005~2025)

(단위 : 백만원)

| 연도 | 정부 별 국고증감 | 국고 | 지방교육재정 | 지방비 | 합계 | 전년대비 증감율 |
|------|---------------------------------|--------|--------|-------|--------|----------|
| 2005 | 노무현 국고 264% 증가 총액 357% 증가 | 5,510 | - | - | 5,510 | - |
| 2006 | | 5,500 | - | - | 5,500 | -0.2% |
| 2007 | | 13,610 | - | 3,300 | 16,910 | 300% |
| 2008 | | 20,061 | - | 5,104 | 25,165 | 49% |
| 2009 | 이명박 국고 97% 증가 총액 180% 증가 | 23,720 | 25,137 | 4,140 | 52,997 | 211% |
| 2010 | | 29,453 | 24,389 | 5,893 | 59,735 | 7% |
| 2011 | | 32,247 | 24,024 | 5,813 | 62,084 | -1% |
| 2012 | | 32,247 | 23,822 | 5,813 | 61,882 | -1% |
| 2013 | | 39,421 | 25,238 | 5,813 | 70,472 | 14% |
| 2014 | 박근혜 국고 39% 증가 총액 26% 증가 | 44,221 | 27,347 | 5,813 | 77,381 | 10% |
| 2015 | | 44,221 | 26,632 | 5,813 | 76,666 | -1% |
| 2016 | | 52,109 | 27,899 | 5,813 | 80,008 | 12% |
| 2017 | | 54,779 | 28,518 | 5,813 | 83,297 | 4% |
| 2018 | 문재인 국고 5% 증가 총액 5% 증가 | 54,779 | 27,963 | 5,813 | 82,747 | -0.6% |
| 2019 | | 54,779 | 29,013 | 5,813 | 89,605 | 1.2% |
| 2020 | | 54,779 | 29,591 | 5,813 | 90,183 | 0.6% |
| 2021 | | 54,065 | 29,591 | 5,813 | 89,469 | -0.8% |

| | | | | | | |
|------|------------------------|--------|--------|-------|--------|--------|
| 2022 | | 57,472 | 30,150 | 5,813 | 93,435 | 4.4% |
| 2023 | 윤석열 | 57,472 | 31,841 | 5,813 | 95,126 | 1.8% |
| 2024 | 국고 86% 감소 총액 56% 감소 | 28,736 | 33,679 | 2,907 | 65,322 | -31.3% |
| 2025 | | 8,087 | 33,679 | 0 | 41,766 | -36.1% |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기본계획과 제도개선협의체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2001~2004 진흥원 설립 이전 자료는 부존재. 2025년 수치는 정부예산안을 참고한 추정치이며, 지방교육재정은 달라질 수 있음. 2024년 지방교육재정 중 올해 추경금액은 미반영된 수치임.

<표 2>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수업시수, 수혜학생수 등 변화(2005~2024)

| 연도 | 강사수 | 학교수 | 수업시수 | 수혜학생수 |
|------|-------|-------|-----------|-----------|
| 2005 | 1,628 | 3,214 | 156,048 | 706,656 |
| 2006 | 1,431 | 2,445 | 169,889 | 782,400 |
| 2007 | 1,764 | 3,157 | 300,000 | 1,010,240 |
| 2008 | 2,243 | 3,689 | 395,277 | 1,180,480 |
| 2009 | 3,183 | 4,799 | 1,032,561 | 1,535,680 |
| 2010 | 4,156 | 5,436 | 1,130,451 | 1,739,520 |
| 2011 | 4,164 | 5,772 | 1,134,390 | 1,847,040 |
| 2012 | 4,263 | 6,531 | 1,161,081 | 1,900,000 |
| 2013 | 4,485 | 7,254 | 1,323,506 | 2,200,000 |
| 2014 | 4,735 | 7,809 | 1,454,483 | 2,550,000 |
| 2015 | 4,916 | 8,216 | 1,455,206 | 2,660,000 |
| 2016 | 5,357 | 8,776 | 1,539,092 | 2,907,000 |
| 2017 | 5,237 | 8,628 | 1,428,959 | 2,461,440 |
| 2018 | 5,282 | 8,344 | 1,429,549 | 2,467,920 |
| 2019 | 5,158 | 8,481 | 1,418,884 | 2,558,452 |
| 2020 | 5,098 | 8,594 | 1,357,344 | 2,396,127 |
| 2021 | 5,065 | 8,620 | 1,376,580 | 2,406,825 |
| 2022 | 5,040 | 8,557 | 1,451,062 | 2,427,744 |
| 2023 | 5,021 | 8,693 | 1,529,072 | 2,621,843 |
| 2024 | 4,805 | 8,475 | 1,041,777 | 1,786,261 |

<표 3> 문화예술·체육 교육 진흥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력 합의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의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해 풍부한 문화소양과 튼튼한 체력,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2조(역할 및 책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양 부처”라 한다.)는 소관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재원 확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한다.

② 양 부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도 교육청의 의사를 존중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행·재정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각 사업이 지역과 학교의 정책 여건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개별 협력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부처별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은 각 사업별로 양 부처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2장 협력 내용

제3조(협력사업) ① 양 부처는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전문예술인을 학교에 지원하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
2. 초등학교에 대한 체육 보조강사 배치 사업
3.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
4. 실내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② 상기 사업 이외에 추가되는 사업과 과제에 대하여는 양 부처가 수시로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4조(기간) 동 업무협력 합의서는 양 부처가 상호 동의하에 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한쪽 당사자가 업무협력의 종결 의사를 문서로서 통보하지 않는 한 양 부처의 협력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실무협의회

제5조(구성 및 기능) ① 양 부처는 학교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민간 전문가 등 기타 구성원에 대하여는 양부처 팀장이 합의하여 정하되 안건에 따라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정책국장(팀장) 및 관련 부서 과장
2.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국장(팀장) 및 관련 부서 과장

제6조(운영) ① 실무협의회에서는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도개선, 행·재정 지원 등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추진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구성원은 누구나 필요한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으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양 부처가 합의하에 정한다.

2008. 10. 15.

<표 3> 문화예술·체육 교육 진흥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력 합의서

|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 인 촌 (서명)_____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서명)_____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5)은 문화예술교육이 부각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 우리 사회가 문화감수성을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를 재가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경제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둘째,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대가 문화예술교육을 주목하게 하고 있다. 셋째, 우리 사회의 오랜 문제인 공교육에 대한 대안적 논의로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넷째, 국가의 경계를 넘는 다인종·다문화 시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걸맞지 않게 여전히 수직적 위계문화와 폐쇄적 경계 만들기가 잔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를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2013년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적 소질을 발견하며,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또한 정규수업 태도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수업이 집단적, 협력적 활동을 매개로 이루어져 학생 상호 간의 이해수준 증진과 유대감 증진 등의 효과도 나타났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계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예술강사 수업은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에 한정하지 않고, 학생들의 정서적 태도의 환기와 각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어, 학생들에게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도 되었다고 분석했다.

2) 학교예술강사 근무환경 및 처우

학교예술강사는 <표 4>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서류심사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고, 면접 및 모의수업 심사를 치르고 분야에 따라 실기시험도 거쳐야 한다. 합격 이후에는 140시간의 의무연수를 통해 교수법, 학습자 이해, 각 전공별 교육 등을 이수해야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정부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의무연수를 대폭 축소해, 2024년 현재는 학교 현장 및 교육대상 이해 그리고 협력수업에 대한 3과목의 온라인연수만 진행되고 있다.

<표 4> 2024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자격요건

| A유형 | B유형 |
|---|---|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 |
|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 |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소지자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 |

<표 5> 기본, 의무연수 개요

| | 기본연수 | 의무연수 |
|---|---|---------------------------------------|
| 교육대상 | 2013년까지 선발된 예술강사 | 2014~2016년 선발 예술강사 |
| 개설기간 | 2006년~2015년 | 2014년~2016년 |
| 연수시수 | 140시수 | 60시수 |
| 교육내용 | 예술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기본교육(교수법, 분야별 예술전문성 등) | |
|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시 교육시수 인정 여부 | 13년 선발 활동 강사까지 진흥원 기본연수 수료(140시수)하면 교육사 2급 자격 발급 요건 중 교육과정 이수요건 충족 | 의무연수는 교육사 자격증 발급 시 인정되는 교육시간 아님 |

선발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예술강사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학교배치를 신청하고, 다른 강사와의 경쟁을 통해 학교를 배치받게 된다. 연 476시수 한도 내에서 배치 신청할 수 있지만, 경쟁을 통해 배치되기 때문에 예술강사 배치시수는 동일하지 않고 천차만별이다. 또한 476시수는 최대한도일 뿐, 1인 평균 배치시수는 300시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술강사는 3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내 배치된 학교와 협의한 일정대로 수업을 할 수 있다. 학교로부터 한 학기 만에 수업마칠 것을 요구받으면 근로계약기간이 3~4개월만에 종료되기도 하는데, 예술강사의 평균 계약기간은 8.5개월 정도이다. 수업은 교과 시간에 이루어지며, 방과후 및 늘봄수업은 금지되어 있다.

학교예술강사는 초창기 사업소득자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의무연수 또는 학교수업 도중 사고를 당해도 온전히 예술강사 스스로 비용을 부담했다. 2007년 진흥원이 실시하는 의무연수에 참가한 무용예술강사가 골절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진흥원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고 2009년 대법원 최종 판결로 무용 예술강사는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로써 예술강사들은 노동자성을 획득해 2010년부터 근로계약을 맺게 되었다. 예술강사가 노동자성을 획득하자 진흥원은 2011년부터 지역문화재단으로 고용주체를 변경하기 시작했고, 2018년까지 고용주체는 지역문화재단과 민간단체가 혼재하다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민간단체가 고용을 담당했다. 고용주체의 변화는 있었으나 사업의 결정권

은 진흥원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 2021년부터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실제 총괄기관인 진흥원이 학교예술강사를 직접 고용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이 의결돼 예술강사의 고용주체가 진흥원으로 법제화되었다. 다만 직접 고용 이후에도 진흥원은 민간단체를 공모선정해서 고용계약 외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000년 예술강사 시간당 강사료는 국공립대 강사료 16,000원의 2배 이상이었으나, 2010년에는 예술강사 40,000원, 국공립대 강사 41,400원으로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2023년에는 예술강사 43,000원, 국공립대 91,200원으로 임금수준은 20여년 전과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2009년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사업의 2024년 초등스포츠강사는 사업 초창기와 비교해 임금이 약 70% 인상되었고, 15년차 강사의 경우 근속수당을 적용하면 임금이 사업 초창기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다. 공공기관의 유사 시간제 강사 직군의 강사료도 <표 7>과 같이 꾸준히 인상되어, 상대적으로 예술강사의 강사료는 낮은 수준이 되었다. 강의시간 외 연수 및 수업 연구, 준비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초단시간노동자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3개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문제인 정부 들어 대부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제공된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도 예술강사들은 여전히 사용할 수 없다.

<표 6> 예술강사 연도별 최대 강의시간변화(2005~2024)

(단위 : 시수)

| 구분 | '05~'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23 | '24 |
|------|----------------|-----|-----|-----|-----|-----|-----|----------|-----|---------|-----|
| 최대시수 | 627 (제한 없음) | 476 | 450 | 476 | 476 | 476 | 476 | 340(374) | 374 | 476 | 471 |

<표 7> 예술강사 강사료(2005~2024)

(단위 : 원)

| 구분 | 2005~2016 | 2017~2024 |
|------|-----------|-----------|
| 예술강사 | 40,000 | 43,000 |

※ 2000~2004년에는 운영주체였던 국악 및 연극협회의 자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료 수치가 상이하고,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돼 표에서 제외함

<표 8> 대학 시간강사 강사료(2010~2023)

(단위 : 원)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국립대 평균 | 42,500 | 60,000 | 70,000 | 80,000 | 80,000 | 80,000 | 82,800 | 85,700 | 88,700 | - | 92,800 | - | | |
| 국공립대 평균 | 41,400 | 49,300 | 58,000 | 68,000 | 69,500 | 70,300 | 71,700 | 72,700 | 72,100 | 73,900 | 86,200 | 88,200 | 89,500 | 91,200 |

※ 매년 6월 대학정보공시 및 정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표 9> 시간제 강사직군 강의료

| 구 분 | 법무부 | 지역 문화재단 | 시청자 미디어센터 |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 한국문화 정보원 | 국공립대 |
|------------------------|---------|-------------------|--------------------|-----------------|-----------------|---------|
| 강사 명칭 | 법교육강사 | 문화예술 교육강사 | 미디어강사 | 예술강사 | 찾아가는 공공누리 강사 | 시간강사 |
| 강의료 (1h 기준) | 100,000 | 50,000 ~80,000 | 90,000 ~150,000 | 43,000원 | 150,000 | 91,200원 |

<표 10> 초등스포츠강사 급여 - 총복 기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수당(기본급) - 월 2,186,000 ■ 급식비 - 월 150,000 ■ 정기상여금 - 연 1,000,000 ■ 명절휴가비 - 연 1,700,000 ■ 맞춤형복지비 - 연 650,000 ■ 연수비 - 연 800,000 ■ 피복비 - 연 200,000 ■ 근속수당 - 연차당 39,000 ■ 가족수당 - 공무원과 동일 ■ 순회근무수당 - 해당자 50,000 ■ 자녀학비수당 - 해당자에 한함 ■ 기타 : 12개월 연중계약, 4대보험 적용, 퇴직금 지급, 방학 중 임금 지급 |
|---|

<표 11> 지역별 예산, 선정시수, 예술강사 인원(2024)

| 연번 | 지역 | 예산(천원) | 지원학교수 | 지원시수 | 예술강사인원(명) |
|----|----|------------|-------|-----------|-----------|
| 1 | 서울 | 8,288,651 | 1,051 | 141,253 | 743 |
| 2 | 부산 | 4,333,916 | 521 | 74,240 | 343 |
| 3 | 대구 | 2,023,333 | 332 | 33,692 | 225 |
| 4 | 인천 | 2,655,608 | 427 | 46,732 | 181 |
| 5 | 광주 | 2,861,044 | 280 | 49,090 | 244 |
| 6 | 대전 | 1,777,309 | 243 | 29,226 | 166 |
| 7 | 울산 | 1,992,791 | 180 | 34,867 | 129 |
| 8 | 세종 | 723,879 | 82 | 12,048 | 80 |
| 9 | 경기 | 6,512,633 | 1,251 | 108,746 | 682 |
| 10 | 강원 | 5,805,703 | 424 | 103,447 | 213 |
| 11 | 충북 | 2,855,192 | 364 | 49,329 | 208 |
| 12 | 충남 | 3,817,352 | 539 | 66,036 | 256 |
| 13 | 전북 | 4,042,226 | 599 | 68,428 | 358 |
| 14 | 전남 | 3,615,117 | 632 | 62,054 | 259 |
| 15 | 경북 | 4,308,455 | 656 | 74,312 | 332 |
| 16 | 경남 | 3,706,684 | 743 | 63,947 | 287 |
| 17 | 제주 | 1,422,891 | 151 | 24,330 | 99 |
| 합계 | | 59,319,893 | 8,475 | 1,041,777 | 4,805 |

<표 12> 학교예술강사 지역, 분야별 인원(2024)

| 연번 | 지역 | 국악 | 연극 | 영화 | 무용 | 만화 애니 | 공예 | 사진 | 디자인 | 합계 | 연령 | 여성 비율 |
|-----------|----|--------------|------------|------------|--------------|------------|------------|-----------|------------|--------------|-------------|-------------|
| 1 | 서울 | 240 | 174 | 43 | 136 | 66 | 38 | 22 | 24 | 743 | 42.6 | 86.4 |
| 2 | 부산 | 125 | 57 | 18 | 85 | 24 | 15 | 7 | 12 | 343 | 44.5 | 87.2 |
| 3 | 대구 | 101 | 33 | 4 | 50 | 14 | 6 | 8 | 9 | 225 | 43.1 | 88.4 |
| 4 | 인천 | 81 | 31 | 5 | 36 | 10 | 6 | 4 | 8 | 181 | 41.9 | 90.6 |
| 5 | 광주 | 90 | 46 | 7 | 61 | 12 | 13 | 6 | 9 | 244 | 41.3 | 90.6 |
| 6 | 대전 | 65 | 22 | 3 | 42 | 18 | 8 | 4 | 4 | 166 | 42.4 | 87.3 |
| 7 | 울산 | 54 | 22 | 3 | 30 | 6 | 8 | 2 | 4 | 129 | 40.7 | 91.5 |
| 8 | 세종 | 37 | 6 | 3 | 15 | 6 | 9 | 0 | 4 | 80 | 41.8 | 92.5 |
| 9 | 경기 | 292 | 124 | 29 | 131 | 48 | 26 | 15 | 17 | 682 | 42.4 | 88.3 |
| 10 | 강원 | 91 | 30 | 4 | 53 | 8 | 14 | 2 | 11 | 213 | 40.8 | 84.0 |
| 11 | 충북 | 95 | 24 | 5 | 52 | 13 | 10 | 2 | 7 | 208 | 43.3 | 80.3 |
| 12 | 충남 | 104 | 52 | 7 | 46 | 17 | 18 | 3 | 9 | 256 | 43.2 | 81.6 |
| 13 | 전북 | 137 | 53 | 11 | 88 | 27 | 24 | 6 | 12 | 358 | 43.3 | 87.2 |
| 14 | 전남 | 107 | 39 | 11 | 58 | 12 | 22 | 3 | 7 | 259 | 42.7 | 87.3 |
| 15 | 경북 | 174 | 39 | 5 | 81 | 12 | 12 | 3 | 6 | 332 | 40.5 | 86.4 |
| 16 | 경남 | 119 | 52 | 14 | 62 | 13 | 15 | 5 | 7 | 287 | 42.4 | 84.0 |
| 17 | 제주 | 39 | 16 | 3 | 21 | 6 | 9 | 2 | 3 | 99 | 46.3 | 85.9 |
| 합계 | | 1,951 | 820 | 175 | 1,047 | 312 | 253 | 94 | 153 | 4,805 | 42.5 | 86.8 |
| 비율 | | 40.60% | 17.07% | 3.64% | 21.79% | 6.49% | 5.27% | 1.96% | 3.18% | 100% | | |

3) 충청북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충북지역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담당하고, 고용 외 업무는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충북지역 예술강사의 임금 및 처우는 타지역 예술강사와 동일하게 시급 43,000원, 3개보험(고용, 산재, 국민연금) 적용을 받는다.

충북지역은 2024년 기준으로 학교예술강사 208명이 364개 학교에서 49,329시수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보다 35.05% 줄어든 수치이다. 충북의 예술강사지원사업 보조금 총액은 최근 5년째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방교육재정의 동결 때문이다. 국고의 지원은 지방교육재정 지원과 연동되어 있어, 지방교육재정을 증액한 교육청들은 매칭금액을 더 배분받았고 지방교육재정을 동결한 충북의 보조금은 줄어들었다. 충북을 포함해 충남, 전북, 경북 4개 지역교육청이 5년 동안 지방교육재정을 동결했다. 2008년 교육부(교육청)와 문체부가 1대1 예산매칭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는 교육청이 예산매칭 비율을 지키지 않았고, 2024년에는 문체부가 예산매칭 비

을을 지키지 않고 있다.

<표 13> 충북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및 수업시수(2019-2024)

| 연도 | 예산 (단위:천원) | | | | 예술강사 (명) | 수업시수 | | |
|------|------------|-----------|------------|---------|-------------|---------|--------|--------|
| | 보조금 총액 | 국고 | 지방교육 재정 | 지방비 | | 신청시수 | 운영시수 | 선정비율 |
| 2019 | 4,502,025 | 2,653,914 | 1,564,000 | 284,110 | 236 | 104,430 | 77,516 | 74.23% |
| 2020 | 4,462,175 | 2,614,065 | 1,564,000 | 284,110 | 224 | 104,192 | 73,299 | 70.35% |
| 2021 | 3,676,406 | 1,828,296 | 1,564,000 | 284,110 | 221 | 106,633 | 71,291 | 67.84% |
| 2022 | 3,997,299 | 2,149,189 | 1,564,000 | 284,110 | 219 | 108,633 | 75,861 | 70.33% |
| 2023 | 3,952,962 | 2,104,742 | 1,564,000 | 284,110 | 217 | 109,218 | 75,950 | 70.76% |
| 2024 | 2,593,077 | 886,997 | 1,564,000 | 142,080 | 208 | 114,696 | 49,329 | 43.01% |

3.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문제점 및 과제

1) 2023년 수준으로 국고 복원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국고(문체부), 지방교육재정(17개 시·도교육청), 지방비(17개 시·도자치단체) 매칭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와 교육부(교육청)은 2008년 MOU를 통해 예산 공동부담을 약속해,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의 90% 이상을 부담했다. 2024년 국고가 삭감되기 전까지,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 성향을 막론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정했으며,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은 거의 매년 증액되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청의 저조한 예산부담비율을 지적해왔고,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지침을 만들어 국고를 50% 대폭 삭감했다. 예산 삭감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25년 국고는 72% 삭감을 앞두고 있다. 기재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대해 ‘정규 교육과정 내 학생들이 지원받는 사업이므로 부처별 예산 활용이 아닌 지방교육재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지방교육재정 예산 확대 편성 필요’라고 적시했다.

<표 14> 각 정부별 문화예술교육 주요정책

| 대통령 | 연도 | 추진내용 |
|-----|------|-------------------------------------|
| 김대중 | 1998 |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학교 전통문화 소외현상 제기 |
| | 2000 | •국악강사풀제 시작 |
| | 2002 | •연극강사풀제 시작 |

| | | |
|-----|------|--|
| 노무현 | 2003 |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공동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추진계획' 수립 |
| | 2004 | •문화관광부 내 문화예술교육과 설치 •영화강사풀제 시작 |
| | 2005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분야 추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사업명칭을 '강사풀제'에서 '예술강사지원사업'으로 변경 |
| 이명박 | 2008 |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 2009 | •교육부 MOU체결로 지방교육재정 매칭 시작 |
| | 2010 | •공예, 디자인, 사진 분야 신설 |
| 박근혜 | 2013 | •2017년까지 모든 유·초·중·고에 예술강사/문화예술교육사 파견을 정책과제로 제시 |
| | 2017 | •강사료 3천원 인상 |
| 문재인 | 2018 | •1차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 발표 |
| | 2022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학교예술강사 정의, 채용주체·기준 명시) |
| 윤석열 | 2023 | •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발표 – 차별없이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공정한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 보장,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중장기 비전·전략계획 – 정부의 국정과제(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와 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비전을 반영 •사교육경감대책 발표 – 예술강사 연계 |
| | 2024 | •예술강사지원사업 국고 50% 삭감 |
| | 2025 | •예술강사지원사업 국고 72% 삭감(예정) |

<표 15> 현 정부 예술강사지원사업 국고

(단위 : 천원)

| 연도 | 국고 금액 | 산출내역 |
|------|---|--|
| 2023 | •57,472,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인건비 46,502,114 (4,582명*37시수*43,000원*10개월*56.77%+700명*34시수*43,000*10개월*50%) •강사운영비 7,877,971 •처우개선비 2,395,915 (52,82명*80,000*10개월*56.7%) •사업운영비 696,000 |
| 20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736,000 전년 대비 28,736,000 (50%) 삭감된 금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인건비 23,251,477 (676,661시수*53,867원*56.77%+95,000*53,867*50%) •강사운영비 3,938,506 •처우개선비 1,198,000 •사업운영비 348,317 |
| 20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87,000 전년 대비 20,649,000 (71.9%) 삭감된 금액 (강사료는 교육청에서 부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운영비 4,205,000 •사회보험료 3,882,000(4,805명*807,910원) •강사인건비 0 |

※ 2025년 국고는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심의 전 금액임

정부가 국고를 50% 삭감한 2024년 올해 충북의 실제 수업시수는 초·중·고교에서 신청한 학교예술강사 수업시수 114,696의 43.01%에 불과한 49,329시수의 수업을 운영 중이다. 2023년 진행한 수업시수 75,950시수와 비교하면 64.95% 수준이다. 이렇게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생생한 현장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고, 예술강사 급여는 2023년 1,500만원(12개월 평균 125만원)에서 2024년 1,019만원(12개월 평균 84만 9천원)으로 하락해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다.

정부는 학생들이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지만, 타 부처에는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예술교육을 시행하는 곳은 학교 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산업단지, 농산어촌, 군부대,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국립법무병원,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다. 하지만 그런 기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법무부 등에 예산을 책임지라고 하지 않는다. 그동안의 협력체계를 무시하고 교육이 실시되는 기관에 일방적으로 예산 떠넘기는 건, 학교예술강사가 유일하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및 제15조의2는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예술강사 채용 및 지원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87조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삭감은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교육청과의 협의도 원만하게 진행하지 않아, 2008년 공동부담 등을 약속했던 MOU 정신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일방적인 예산삭감을 중단하고, 그동안의 문화예술교육이 유지되도록 국고를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 부담금액을 조절하려고 한다면, 예산복원 후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충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증액

현재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위기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 공동부담 원칙을 지키지 못한 교육청의 책임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5년 동안 13개 교육청이 예산을 증액했으며, 특히 강원교육청은 올해 지방교육재정을 2배 증액해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예술강사들이 강원지역으로 이주하며, 강원 예술강사의 나이는 평균보다 젊은 40.8세로 나타났다. 강원도민의 평균 나이는 48세로, 강원도가 저출생 고령화 및 지역소멸 위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예술강사들에게는 기회의 지역이 되고 있다.

반면 충북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지방교육재정을 동결했다. 올해 정부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은 증액되지 않아 2023년보다 충북 예술강사 수업시수는 35% 대폭 줄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해 충북 예술강사의 임금은 1,0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고, 월급으로 따지면 80만원대에 불과하다. 정부의 2025년 추가 예산 삭감으로 내년 임금은 더 떨어지게 된다. 충북 예술강사의 평균 나

이는 43.3세로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데, 예산 부족에 따른 수입감소는 젊은 예술인, 예술강사들이 유출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23회계연도 충북교육청 결산 고시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는 3조 5,175억원 규모이다. 순세계잉여금은 740억이고, 기금회계는 1조3,022억원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국가 재정 전체에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은 「지방자치법」 제187조 1항에 따라 ‘수지균형의 원칙’ 균형재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그만큼 충북 학생들은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만큼의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국고 복원과 더불어, 예술강사지원사업의 공동 과제는 지방교육재정 증액이다. 충북교육청은 2023년 수준의 수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이 담보돼야 학생이 필요로 하는 예술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예술강사도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예술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가 있지만, 우선 과제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이다.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을 증액하면 기재부의 국고 삭감 논리는 설득력을 잃게 되고, 국고도 비례해 늘어나게 되면, 학교가 실감하는 증액 효과는 더 클 것이다.

4. 마치며

예술강사는 예술강사 이전에 현장 예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영화, 드라마, 연극, 국악, 무용,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 예술강사들 상당수는 월 100만원도 되지 않는 소득이지만,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었다. 그 힘으로 영화를 하고 연극을 할 수 있었다. 이제 그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아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 계발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왔지만 이제는 공교육에서 그런 기대를 더 이상 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교사·학생의 ‘왜 내년에는 예술강사 선생님 안 오시나요?’, ‘왜 내년에는 더 적은 수업만 받아야 하나요?’ 라는 물음에 답해야 하는 건 예술강사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충북교육청이다. 예술교육을 희망하는 만큼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참고문헌

교육부(2011~2023), 대학정보공시
김광중(2017), 예술강사의 고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대전광역시의회(2021),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2004 문화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2015~2023),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지원계획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2016),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활동지침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2021), 부산지역 학교문화예술교육 현황과 과제 토론회 자료집
충청북도교육청(2024),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공시(2023회계연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2013 예술강사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참고기사 및 웹페이지

한경(2023), 교육청 기금 21조 사상 최대...예산 20% 곳간에 쌓아뒀다, 2023년 12월 29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2911941>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센터 <https://www.swarte.co.kr/>
충청북도교육청 <https://www.cbe.go.kr/>

토론1

문화예술교육은 지역 선진화의 지름길

오세곤 (충북도립극단 운영위원장, 순천향대 명예교수)

우리 헌법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문화와 예술이 국가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국민 모두에게 부여되는 “예술의 자유”란 예술을 감상할 자유와 직접 예술 행위에 참여할 자유 모두를 포함한다. 예술을 감상하고 싶어도 그럴 대상, 즉 예술 작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예술인들이 꾸준히 작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예술 창작 지원의 당위는 여기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예술 행위에 참여하는 일은 어떤가? 전문예술인이 아닌 경우 대개는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 입문하고 상당 수준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받기 마련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일반인들이 예술 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고, 이렇게 일반인들의 예술 행위가 가능하도록 이끄는 전문예술인이 바로 예술강사들이다. 즉 예술강사 파견 사업은 헌법에 명시된 “예술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의거 2005년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좀더 구체적으로 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가의 책무를 밝히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 ②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이 거의 폐지 수준으로 삭감되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학교 교육에 왜 교육청이 아닌 국고를 쓰느냐는 기재부의 논리는 과연 반박할 가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유치하다. 국고든, 지자체 예산이든, 교육청 예산이든 모두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예술강사나 교육 수혜자들은 그 출처가 어딘지 대부분 알지도 못 하고, 또 알 필요도 없다. 그런 걸 협의하고 조정하라고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이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건 국민 모두의 권리인 문화예술교육이 절대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런데 교육청이 자금대응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다고 국고를 50% 줄이더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인데 왜 국고를 쓰느냐며 다시 72%를 삭감해서, 결국 2023년의 10%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다. 예술강사 급여는 100% 삭감이고 운영비 약간만 남겨 놓은 것이다. 약속을 안 지킨 건 교육청인데, 또 학교 교육은 꼭 교육청 예산으로만 해야 한다는 무지한 논리를 펴는 건 기재부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예술강사와 학생들에게만 돌아간다.

문득 솔로몬의 재판이 떠오른다.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두 여인과 판별이 안 되니 공평하게 칼로 아이를 갈라 나눠 주겠다는 솔로몬. 옛 이야기에서는 아이를 살리고자 친엄마가 아이를 포기함으로써 진정한 엄마가 가려진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칼이 아이 위로 떨어질 찰나인데 두 여인 모두 판전을 피우고 있는 형국이다. 헌법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분명 국가에 대해 문화예술교육을 제대로 실행

할 의무가 있다고 명령하고 있건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그 문화예술교육을 놓고 위험한 칼 장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은 과연 어떤 마음일지 무척 궁금하다. 충북의 문화예술교육이 죽건 말건, 그래서 충북의 학생들과 도민들과 예술인들이 피해를 보건 말건 상관없다 할까? 아니면 솔로몬 앞의 어떤 여인처럼 특단의 희생을 해서라도 문화예술교육을 살리고자 나설까?

제발 후자의 마음이길 바라면서, 또한 반드시 그러리라 믿으면서, 이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충북이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모범 사례가 되어 주기를 희망해 본다. 그러려면 우선 충청북도 초중고 예술강사 파견사업의 2024년도 선정비율이 43.01%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최소한 주당 2시간 문화예술교육을 받게 하려면, 거기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상 분명 학교로 분류되면서 실제 교육 수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고려한다면 적어도 현재의 5-10배 수준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단시일 내에는 어렵고 아마도 10-20년 정도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단기 목표를 선정비율 상향에 맞추어서 적어도 각 초중고가 선정을 희망하면서 신청한 수업시수만은 반드시 채워 주고자 노력해 보았으면 한다. 이에 더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예술강사 처우도 상식적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시도해 볼 일이다. 중요한 일을 맡겨 놓고 처우를 엉망으로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 일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증거일 뿐이다. 충청북도와 충북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 마련을 위해, 또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충북으로 모여들고 학생을 필두로 모든 주민들이 예술을 즐기게 됨으로써 수준 높은 문화가 튼튼하게 뿌리내리는 진정한 선진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토론2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공교육 현장의 수요와 지원 기반 마련에 대한 촉구

신혜리(학교예술강사 충북 운영기관,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팀장)

안녕하십니까.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충북 운영기관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신혜리 팀장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충북지역의 운영기관으로써 지역 내 여러 현장의 소리를 듣고 또 여러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보다 어렵고 막막한 때가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불과 작년까지 도교육청과 예산 증액에 관한 논의를 했던 것이 무색하게 이제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할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앞서 24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국고 예산이 50% 정도 큰 폭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와 매칭 편성되는 지방비 또한 50%가 삭감되었고 예산 증액에 대해 긍정적인 얘기가 오가던 지방 교육재정은 국고 삭감의 여파로 모든 노력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충북지역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중 한, 두 곳을 제외한 모두가 그랬습니다.

예산의 규모나 구조에 의해 학교에서 희망하는 모든 시수를 지원하지는 못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약 70%까지는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또 지원 비율을 점차 높일 수 있도록 예산 증액에 대한 방법을 찾으며 애쓰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업 규모의 축소로 총 접수 된 것의 50%도 되지 않는 43%라는 터무니 없는 시수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한 상황이고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학교와 예술강사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기반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결정되기 이전에 사업의 가장 중심 현장에서 모든 주체의 브릿지 역할을 하며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각 지역의 운영기관들과는 그 어떠한 소통의 자리 하나 없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표 21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충북지역 학교 접수 및 선정 현황(최근 5년)>

| 구분 | | 2020 | | 2021 | | 2022 | | 2023 | | 2024 | |
|--------|----|---------|-----|---------|-----|---------|-----|---------|-----|---------|-----|
| | | 시수 | 개교 | 시수 | 개교 | 시수 | 개교 | 시수 | 개교 | 시수 | 개교 |
| 전 체 | 접수 | 104,192 | 556 | 106,407 | 550 | 108,633 | 530 | 109,218 | 545 | 114,696 | 571 |
| | 선정 | 73,299 | 419 | 72,182 | 423 | 76,406 | 445 | 77,278 | 476 | 49,329 | 391 |
| | 비율 | 70% | | 68% | | 70% | | 71% | | 43% | |

문체부에서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 박탈, 예술강사 생계 등의 문제를 늘봄학교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더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이 자리에서 꼭 짚고 가야 할 것은 ‘늘봄학교는 절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대안이 될 수 없다’입니다.

우선 현재 이 늘봄학교라는 시스템이 아직 현장에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저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점차 26년까지 고학년으로 확대해서 초등 전체가 교육 프로그램을 수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나, 계획만 놓고 보더라도 26년이 되어야 초등 전 학년에 기회가 돌아가는 것인데 모든 학년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기까지 그사이의 교육 공백은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학교예술교육의 적절한 대안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또 늘봄학교의 대상은 모두 아시다시피 ‘초등’입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 대안학교까지 전 교종을 포함하면서 일회성 또는 단기적인 교육이 아니라, 초등 1학년 때 예술강사의 수업을 받은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서까지도 전문 예술인을 통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대안으로 겨우 논의되는 것이 당장 초등 이외에는 수혜 받을 수 없는, 그것도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실험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일반 고등학교에 도입 되었고, 때문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고등학교의 수요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말하는 것은 고교에서 고교학점제라는 시스템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필요 불가결하다’입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이를 뒷받침할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아주 ‘극소수만 선택적으로’ 공교육을 통한 양질의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표 2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충북지역 고등학교 접수 및 선정 현황>

| 구분 | | 2020 | | 2021 | | 2022 | | 2023 | | 2024 | |
|------|----|-------|----|-------|----|-------|----|-------|----|-------|----|
| | | 시수 | 개교 | 시수 | 개교 | 시수 | 개교 | 시수 | 개교 | 시수 | 개교 |
| 고등학교 | 접수 | 3,456 | 28 | 3,414 | 26 | 4,418 | 28 | 4,784 | 31 | 5,996 | 40 |
| | 선정 | 2,695 | 24 | 2,593 | 24 | 2,786 | 25 | 3,378 | 27 | 3,577 | 31 |

지금처럼 중앙에서는 지방으로, 지방에서는 중앙으로 폭탄 돌리듯 책임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구조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묻고 함께 개선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학교 현장에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리를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토론3

충북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배성호(충청북도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장)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체부 주관으로, 교육부와 MOU를 체결하여 문체부(국고)와 교육청(교특)이 예산을 5:5 대응투자자로 분담하고, 문체부(국고)와 각 시도의 지자체(지방비) 또한 예산을 5:5로 대응투자하여 운영해 온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전문성 높은 예술강사를 채용하고,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파견하여 국악을 비롯한 총 8개 예술 분야의 협력 수업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예술 감수성 및 적성 개발을 통한 학교예술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23년에는 충북 362개 학교가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었고, 24년에는 354교, 분교를 포함한 364교가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학교 신청대비 선정된 수업시수는 문체부의 국고 감축에 따라 23년 75,950시수 (69.4%) 지원에서 24년 49,852(43.4%, 노조전담시수 포함) 지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23년 11월 문체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축소된 재원을 17개 시·도 지방 교육재정으로 확보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활동 예산의 지방 이양 (24년~25년)이라는 기재부 방침에 근거한 것으로 2023년 574억 7천 200만원이었던 문체부 국고는 2024년에 50% 삭감되어 287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산어촌의 전 교생 400명 이하 소규모학교의 소외지역 학생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2024년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예산 30억원 또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2024년 287억 3600만원이었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문체부 국고는 2025년에 71.85% 삭감되어 80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액 운영비로, 17개 시도의 지자체에서도 대응투자 원칙에 따라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문체부 국고 삭감 및 이에 따른 지자체의 지방비 감액에 따른 결과로 충북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총액은 2023년 43억 7천 8백 87만 2천원에서 2024년 28억 5천 5백 19만 2천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 예산이 이토록 큰 폭으로 축소되어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학생들의 예술실기 교육 기회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충북교육청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전체가 큰 폭으로 감축되는 상황에서도 충북교육청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15억 6천 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9월 26일 개최된 제99회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 확보 요구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충북교육청도 이에 동의 의견을 제출하여,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시·도 교육청의 공동 노력으로 기재부 및 문체부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기재부 및 문체부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 예산 현행 수준 확보를 중앙부처에 요청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 충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예술경험 확대를 위해 지역예술자원과 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예술학교, 예술드림거점학교, 학생예술동아리, 예술중점학교, 오케스트라 관현악부, 감성소리숲 합창 등의 학교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예술교육 및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예술분야 교수학습 전문성 향상 연수를 통해 예술교육 담당 교사의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학교예술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외에도 늘봄학교 예술분야 프로그램·방과후학교 예술분야 프로그램·온마을 배움터 예술분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충북교육청은 학교예술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도교육감 협의 결과에 따른 요청으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가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지방교육재정에 대하여서도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토론4

아이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

허수영 (학부모)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과 학부모님.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최근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는니, 고교 무상교육의 중앙정부 예산이 사라진다는니 하는 굵직한 교육 소식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와중에, 예술 강사제의 예산이 크게 줄었다는 뉴스를 뒤늦게 보았습니다. 그런 직군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가 기사를 읽고 나서야 연극, 공예, 무용 등의 분야에서 전문 강사 지도를 받을 기회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아이가 일상 속에 매일 접하는 만화애니메이션과 사진 수업도 듣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예산 삭감이라니, 그것도 작년과 올해 갑자기 대폭 삭감이라니, 학부모이기 전에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의 방향과 예산 집행 절차에 의문이 생깁니다.

일차적으로 의아한 점은, 예산을 줄이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2, 3년 만에 제도의 존폐를 위협하는 게 옳은가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관련한 정책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지속되어야 그 의미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예술 강사 제도는 예술인 일자리 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해도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하는데 하물며 정부의 예산이 올해는 반으로 내년에는 그 이상으로 깎인다면 그 예산이 임금으로 사용되는 사업의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리해고나 다름없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고용이 안정되지 않고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예술인들이 예술 강사직을 희망할까요? 유능한 강사진들이 이탈하지 않는 매력적인 일자리로 자리 잡아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교육의 질과 더불어 양도 걱정됩니다. 도시 지역 간에도 학군과 학원밀집도가 차이 납니다. 예산이 줄어든다면 공교육에서 예술 수업의 경험 기회가 줄어들 것이고 특히 소외 지역이나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예술 교육이 거의 유일한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줄어든 예산을 보완하지 못한 우리 지역에서 예술 수업 시수가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대응책 없이 줄인 예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현장으로 떠넘겨졌습니다.

요즘 보편화된 공공기관의 SNS에서는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연, 이벤트 소식 뿐 아니라 기성예술인과 청년예술인들 지원 사업 소식도 간간이 본 기억이 납니다. 예술 강사들은 예술을 창작하고 이를 향유하는 문화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예산을 아끼면서 문화예술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씨앗을 심지 않고 물을 주는 바와 다름없습니다. 20여년을 지속해온 예술 강사 수업을 백년지

대계라는 교육정책의 지속성을 넘어서 문화예술 강국이라는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큰 관점으로 볼 수 없을까요? 문화 예술인들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여 일반 국민도 그 수혜를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극단적인 성공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악기 하나쯤 다루면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조언을 흔히 주고받으며, 생활 체육은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학부모들은 예술 수업을 희망합니다. 어릴 적 피아노 태권도 미술 학원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요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학령기가 되면 예체능 할 시간이 없으니 7살부터 2학년까지 빨리 시키라고 엄마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피아노 태권도를 공교육에 편입시키는 날은 안 오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우리가 예술 수업을 가까이하려는 이유는 이를 통해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배우고 다채로운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익히며 감정적 공감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작년 아이 학교로 자원봉사를 나갔을 때 국악선생님을 뵈었던 생각이 납니다. 외부에서 선생님이 오시자 아이들이 복도를 기웃대고 폴짝거리며 말을 걸고, 이내 장구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업분위기가 환기되고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께 수업을 듣는 현장을 목격하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시다. 자녀세대에 더 좋은 교육 기회가 주어진 것을 환영하는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권리이자, 그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예산을 삭감하여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아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잃게 될 가능성은 훨씬 큼니다. 학생과 예술 강사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5

한국의 예술과 교육의 발전을 역행하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위기

김시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 예술강사)

안녕하세요.

저는 18년째 학교예술강사를 하고 있는 김시내 강사이자 충북 학생의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 학교예술강사들이 10개월이라는 단기계약자로 매해 계약과 해약을 반복하며, 보따리상처럼 여러 학교를 다니며 곳곳하게 학생들에게 예술을 지도하며 창의력과 소통 공감을 얻어내어 마음의 문을 열어내는 교육을 일구어 놓았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일수록 더욱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협업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해 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술분야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 계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들은 이런 가치를 내걸고 있기도 합니다.

창조적인 인재를 고용하며, 창의적인 사원을 키운다.

예술을 통해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융합된 환경을 만든다.

예술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는 순방했던 필리핀에서 양국간의 활발한 문화·예술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친밀감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순방에서 항상 문화예술을 강조하고, 문화예술을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은 2년동안 86%를 삭감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향유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고,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마음속의 숨겨놓았던 자신들의 창의성을 풀어놓을 기회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고 슬픔이 밀려옵니다. 이유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존감이 향상되고, 교우관계의 진전 등 변화를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저에게 이야기 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 저는 춤을 출 수 없고 무용을 포기하겠습니다.

예술강사 : 포기는 배추를 셀 때만 하는거야 안 해봐서 안 움직여봐서, 그러니 조금씩 노력해보자. 선생님이 도와줄게! 시수가 줄어서 횡수로 2년이지만 총 1년 수업의 시간 밖에 되지 않지만...

학생 : 선생님 2년동안 무용수업을 하면서 제가 몸을 움직이고 춤을 추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학생과 이렇게 이야기나누고, 이제 그 학생은 누구보다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예술교육 수업을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행복해 합니다.

(동영상)

여러 학생들 앞에 서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과도 자연스레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칭찬을 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예술활동 수업시간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그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교류합니다. 이런 수업을 나라에서 없앤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부모님들과 학교 학생들 조차도 왜 무용수업 없어요? 하며 왜 나라에서 돈을 안 주냐고 하더라구요ㅜㅜ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으며 서로 위하며 배려하는 예술교육 수업 기회를 박탈하여, 2025년도 예술강사의 강사인건비를 0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교육을 통해서야 받을 수 있던 예술교육을 공교육을 통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은 계속 확보되어야 합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상상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소질을 발견하여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 예산을 원상복귀해야 합니다.

충북은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입니다. 충북교육청도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여겨주십시오. 도서산간 지역학생들 더 나아가 충북 모든 학생들의 문화예술을 원하는 만큼 차별받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시오. 최소한 다른 교육청이 몇 년 동안 증액한 만큼 예산책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김시내 예술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예술강사

조현경 (북이초등학교 교사, 연구부장)

저는 2014년 처음으로 예술강사 수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업 분야는 ‘연극’으로 공연 배우와 교육활동을 겸하는 ‘예술강사’의 모습이 생소하면서도, 다양하고 전문성있게 수업하시는 모습에 즐거워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후 2015년부터 지금까지 9년째 연구부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술강사 업무를 함께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기본적으로는 관련 교과에서 교사들이 진행하는 수업을 기본으로 하여 분야별 예술강사 사업, 방과후 수업을 통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1인 1악기 연주, 예술 동아리, 합창단이나 관현악단 운영 등 교육청 예산 지원을 통한 학교특색사업 지정, 교육청과 지역문화단체의 연결로 이루어지는 찾아오는 공연 사업 등이 주요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중 예술강사 수업에 대한 호응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나 지향점이 아이들에게 감성과 소양을 길러주는 것과 더불어 직간접적인 경험과 실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사와 예술전문가인 예술강사의 협력 수업을 통해 학교문화예술이 더욱 풍부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최근 교육재정의 악화와 쟁점의 변화로 인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재정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청주 외곽의 소규모학교로, 문화적 경험과 체험이 어려운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찾아오는 공연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관련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학교예술강사 사업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마다 학교에 배치되는 수업 시수와 분야가 줄어들어 현장에서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 충북교육청은 다채움에 예산과 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학습에 대한 집중력, 문해력이 낮아지고 주변 사물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감성이

메탈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을 보면 오히려 디지털교과서 폐지, 14세 이하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제재 등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더욱 아이들 곁에 함께해야 합니다. 이런 필요성과 중요성은 말로만 해서는 지켜지지 않으며, 예술강사사업을 비롯한 문화예술교육의 예산을 확대하고, 일상적이고 교육적이며 학교 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업무가 아닌 수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학교예술강사 사업에 대해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충청북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